

할멈 죽으면 봄에는 꽃구경 가려고 했는데....

김영자/전·진·상 가정호스피스

할멈 아버지(81세)가 오른쪽 아래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오신 것은 할머니(77세)가 돌아가시고 한달이 조금 지나서였다. “지나가는 길에 한 번 들러왔지” 하시며 진료 접수를 하셨다. 그동안의 안부를 묻자 잘 지내셨다면 “할멈 죽으면 봄에는 꽃구경 가려고 했는데... 가슴이 뜨끔거리 틀렸어. 할멈 때문에 그동안 가보고 싶은 곳도 못 갔거든. 이제 날이 풀리면 아이들이랑 함께 가기로 했어.” 하셨다. 할아버지가 가슴에 불편을 느낀 것은 6개월 전이었다고 한다. 3년 전 할머니가 재발된 결핵 치료를 받을 때 가족 검진상 할아버지는 정상이었고, 2년 전 두통과 목의 통증 때문에 받은 검진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할아버지 진찰 결과는 폐암이었고 자세한 흉부외과 진료 의뢰 결과는 수술 불가능한 말기 상태였다. 전·진·상과 할아버지 가족과의 인연은 20년도 넘는다.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할머니는 만성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심한 손발의 관절 변형과 통증 때문에 집에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남용하여 부작용이 심각했었고 3년 전부터는 폐결핵이 재발되어 거동하기 힘들게 되자 가정 진료, 간호를 하면서 할아버지와 전·진·상 가족은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다. 점점 힘들어 하시는 할머니를 위해 할아버지는 열심히 전·진·상을 오가면서 간병을 하셨고 우리가 방문을 나가는 날이면 무엇이든 대접하고 싶어하시는 소박한 노인들이셨다. 할머니의 통증도 심한 편이어서 소량의 MS콘틴으로 1년 반쯤 통증 조절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가족들이 원하는대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고 입원하신 지 3일만에 돌아가셨다. 할아버지는 슬하에 6남매를 두었으며 막내딸 외에 모두 결혼해서 살고 있고 할아버지는 막내아들 부부와 손자, 막내딸과 함께 전·진·상에서 도보로 왕복 30분 거리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층 집에 전세로 살고 계셨다. 다른 가족도 가깝게 살면서 서로 도우며 어려운대로 열심히 사는 가족이었다. 할아버지와 그 가족들에게 완화 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충분한 소개와 설명을 하고 이해시킨 다음 가족과 함께 호스피스 치료에 임하였다.

통증 조절은 아세트아미노펜과 코데인정으로 시작하여 MS콘틴으로 차츰 중량 사용하다가 펜타닐 팹추로 바뀌서 사용하였고 골전지로 인한 통증과 호흡 곤란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스테로이드제제를 함께 사용하였다. 그리고 완화적 방사선 치료(12회)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병원에 의뢰하였다. 할아버지는 정기적으로, 아니면 불편할 때마다 전·진·상 의원 외래에 오셔서 치료받는 것에 대해 편하게 여기시는 것 같았고, 우리를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셨다. 치료 시작부터 입원은 하지 않게 해주길 우리에게 부탁했는데 할머니의 마지막 입원 기억이 매우 괴로웠던 것 같았고 집에서 돌아가시길 원하

했다. 완화적 방사선 치료는 횡수가 거듭되면서 피곤하고 힘들어하셨으며, 호스피스 5개월째, 폐렴 때문에 입원 치료를 권했으나 할아버지와 가족은 전·진·상에서 계속 가정호스피스 치료 받기를 원했다. 다시 통증 조절로 펜타닐 팻취와 함께 24시간 약물 주입 장치(INFUSION PUMP:MORPHINE+HALDOL MIX)를 피하주사로 연결하고, 필요할 때마다 따로 몰핀을 피하주사 하였다. 펌프 사용 후부터 할아버지는 매우 만족해 하셨고 변비에 대한 주의만 잘하면 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 가족중 주로 돌보는 막내 아들과 딸이 참여하여 간단한 간호를 교육받고 직접 하도록 했으며 언제든지 전화 상담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이 두 자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교대로 할아버지 곁에서 가족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사랑을 보여 드렸고 또한 우리 호스피스팀과도 신뢰 속에 상호 협조하였다. 6개월째에는 거동이 힘들어지고, 호흡 곤란이 심해지자 거의 앉아서 종일 계실 정도였다. 체력 감소, 식욕 부진, 불면, 요통 증가 등으로 너무 힘들 때에는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셨다. 이때부터는 호스피스팀(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약사, 간호조무사, 봉사자)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였고, 병원 침대, 자동 산소 발생기, 흡입기, 공기 침요, 좌변기 등 의료용품을 대여하여 안위를 도모하였다. 마지막 7일간은 날마다 방문하였는데, 하루는 할아버지께서 침대에 앉아, 조그만 밥상에 팔을 올리고 눈을 감은 채 힘들게 산소 호흡을 하고 계셨다. 지금 우리가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드리겠다고 하자, 갑자기 두손을 모으시면서 “나도 하느님을 믿고 기도해” 하셨다. 힘들게 숨을 몰아 쉬면서 그 가족들의 영적 돌봄은 계속되었지만 집안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종교적인 접근은 조심스러웠다. 마지막 할아버지의 뜻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봉사자를 통해서 종교에 대한 소개를 했지만 가족들은 지금까지의 집안 전통에 따르길 원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편 가족들의 비협조로 인하여 환자 본인이 원했던 영적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의식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있었으며, 통증조절을 마지막 날까지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였고, 온 가족이 모인 가운데서 평화롭게 임종하셨다.

다른 호스피스 환자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지금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천상의 가장 아름다운 정원에서 꽃구경을 하고 계시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